"명당 도서관에서 공부하세요"

강진 군립도서관, 24시간 무료 개방 후 '명당' 입소문

명문대·각종 자격시험 등 매년 10~20명 합격자 배출

"명당 도서관에서 공부하세요."

강진 군립도서관이 각종 대학입시와 취직 및 자격시험에서 합격자를 배출하는 명당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수험생들로 붐비고 있다.

지난 2006년 24시간 무료 개방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한 강진 군립도서관은 매년 10~20여명의 취업 및 명문대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다.

지난해 강진 성요셉고등학교 개교 이래 최초의 서울대 합격생인 김소리(20·사회과학)양이 대표적인 사례.

"휴일이나 방학때면 강진도서관이 공부하는 놀이터였다"는 김양은 "면학 분위기도 좋고, 공부도 잘 돼 후배들에게도 도서관에서 공부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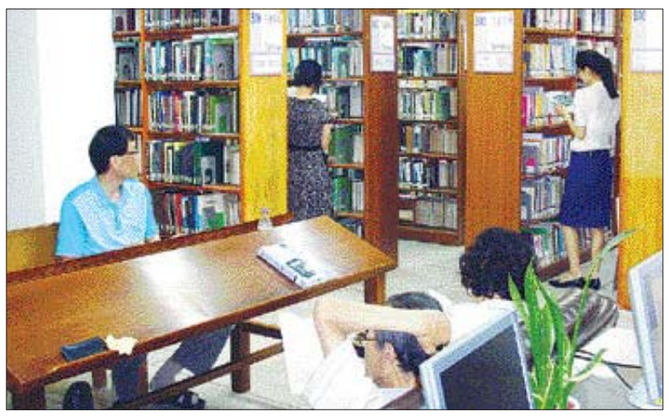
전남지역 최초의 군립도서관으로 지난 65년 1월 강진읍 남성리에 개관한 강진도서관은 지난 2006년 열람실 일부 좌석을 24시간 개방했다. 농촌 지역 특성상 밤늦게까지 공부할 곳이 없는 지역 주민을 배려한 조치였다.

이후 지난 2년간 서울대 등 명문대 합격생은 물론 국가고시나 공무원 임용시험, 국가자격취득시험, 공기업 시험 등에서 30여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면서 명당으로 이름나 인근 장흥과 해남 등지의 수험생들까지 몰리고 있다.

이같은 노력 덕분에 강진도서관은 한국도서관협회로부터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강진도서관의 지리적 위치도 명당으로 이름을 떨치는데 한 몫하고 있다.

강진지역은 소가 누워있는 형상으로 주요 공공기관이 소 머리로 추정되는 자리에 밀집돼 있다.



강진군립도서관 도서 열람실에서 지역 주민들이 독서에 열중하고 있다.

강진군청과 경찰서 부지는 콧등이며 군립도서관은 콧구멍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소의 귀 자리인 고성사는 다산 정약용선생이 사의재에서 옮겨와 4년간 머물며 큰 아들과 함께 주역 등 학문을 연마했던 현장이고, 영랑생가도 소의 얼굴 부위에 위치해 있다.

박석진 강진도서관장은 "소의 머리 중에서도 콧구멍은 코뚜레를 끼워 소를 교육시키고, 원하는 길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강진도서관이 콧구멍 부위에 위치해 있어서인지 공부하는 사람들에겐 명당으로 통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도서관은 장서 11만 4천894권과 디지털콘텐츠 1만 549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동도서관과 아동자료실을 갖추고 다양한 계층에게 양질의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진=박진표 기자lucky@

강진 한우촌 개장 100일만에 20억 매출

19일 국거리·불고기용 한우 30~40% 특별할인 행사

한약재인 '황금(黃芩)'을 먹여 키운 1등급 암소 한우만을 판매하는 강진들 황금한우 암소 먹거리촌이 '개장 100일 맞이 특별 할인 행사'를 갖는다.

강진군은 "오는 19일 군동면에 위치한 황금한우 암소 먹거리촌에서 국거리와 불고기용 한우를 30~4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고 밝혔다.

또 행운권 추첨을 통해 꼬리, 사골, 우족 등 다양한 한우선물세트를 경품으로 제공하고, 노래자랑 등 각종 공연도 열린다.

지난 4월14일 800㎡ 부지에 식육점 6곳과 식당 2곳을 개점한 '강진들 황금한우 암소 먹거리촌'은 개장 후 100일간 2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대비한 성공 사례로 떠오르면서 전국 자치단체와 영농조합, 한우협회 등에서 30여회에 걸쳐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전국적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김영균 먹거리촌 대표는 "값싼 미국산 쇠고기가 쏟아져 들어와도 최고의 품질과 정직한 판매로 승부하면 경쟁력은 충분하다"면서 "양질의 한우 고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평생 고객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담양 '가사문학' DB 구축된다

국가지식과제 선정 … 3년간 21억 투입, DB화 일반인에 공개

면앙정가와 성산별곡·사미인곡 등 한국을 대표하는 담양의 가사문학이 국가지식정보로 데이터베이스화 돼 일반인들에게 제공된다.

담양군은 "'한국가사문학 DB구축 사업'이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실시한 '2008년도 국가지식정보자원과제'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정보자원과제는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은 지식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효용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교육학술·문화·역사 등 5개 분야에 걸쳐 실시됐으며 담양군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문화분야에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올해 7억1천만원을 비롯해 2010년까지 3년간 21억원이 투입돼 담양군이 가지고 있는 가사원본 및 해제본, 가사문학 관련 자료 등 소중한 가사문학 유산이 지식정보 DB로 구축돼 전 국민에게 소개된다.

DB로 구축되는 가사문학 유산은 담양 가사문학관이 소장중인 3천여점으로 송순의 면앙정가, 정철의 성산별곡·사미인곡·속미인곡 등 가사문학을 대표하는'담양 18가사'는 물론 송강집 목판과 옥배잔 등 관련 유물 등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국가지식포털(www.knowledge.go.kr)'과 담양군이 별도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사문학 작품 원문은 물론 현대문 해설 등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2년여 준비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며 "사업 선정으로 한국가사문학이 인터넷과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방법으로 국문학과 역사학, 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한국 지방자치경영대상'

김종식 완도군수 최고 경영자상 수상

김종식 완도군수가 15일 서울 여의도 63시티 국제회의장에서 '제 13회 한국 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 경영자상을 수상했다.〈사진〉

한국 공공자치연구원 등이 주최한 '한국 지방자치경영대상'은 지방행정 혁신과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 최고경영자와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시상하는 상이다.

김 군수는 ▲해양생물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 ▲특색있는 관광시책 추진 ▲대도시 특산품 판촉전략 ▲스포츠 마케팅 ▲정부 공모사업의 선점 등 탁월한 경영역량을 발휘해 공공행정의 최고 경영자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종식 군수는 "이번 수상은 온 군민의 열정과 땀으로 이뤄낸 결실로 모든 영광을 군민들에게 돌린다"며 "앞으로도 완도 미래 성장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군정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사)한빛 여성봉사단

창립 2주년 기념식

(사)한빛 여성봉사단(회장 심정희)이 18일 광산구 송산유원지에서 창립 2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광산구 지부장 이·취임식과 함께 봉사활동을 지원한 (주)세화기계(대표 유희열) 등 8개 업체와 독지가·회원들에게 표창장이 전달된다.

한빛 여성봉사단은 노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2006년 설립됐으며, 현재 회원 수는 400여명에 달한다.

봉사단은 설립 이후 2년간 십시일반으로 회비 4천700만원을 모아 ▲노인 용돈지원 ▲거동불편 노인 목욕봉사 ▲소외계층 노인 경로잔치 ▲불우이웃 김장담그기 ▲의료봉사 지원 등 197차례의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함평 나비엑스포 성공 기념비 제막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을 기념하는 기념비〈사진〉가 최근 함평군 엑스포공원에 세워졌다.

가로 1.8m, 높이 2.5m 규격의 이 기념비는 화강석으로 제작됐으며 엑스포 성공에 대한 군민의 자긍심과 더 큰 발전을 위한 염원을 엑스포 심벌마크로 형상화했다.

노화섭 범군민추진위원장은 "600년 함평 역사상 최대 역점 사업이었던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은 모든 군민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라며 "이곳을 찾는 군민과 많은 관광객들이 2008 엑스포의 생생했던 현장을 떠올리는 상징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45일간 열린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는 유료 관람객 102만명을 포함해 126만명의 관광객이 방문, 입장권 판매만으로 93억4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장애아동 교육은 통합교육이 효과적"

나주교육청, 특수·통합학급 교사 대상 '학습법' 연수

나주교육청이 장애아동 교육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나주지역에서는 209명의 장애아동이 장애 정도에 따라 해당 학교의 통합반이나 특수반에 배치돼 교육을 받고 있다.

나주교육청은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관내 유·초·중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법 연수를 실시했다.

임을빈 교육장은 "장애아동 교육은 일반아동과 함께하는 통합교육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장애아동의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 강의를 발표한 유지희(목포 임성초등학교)교사도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이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의 지향점이다"고 강조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